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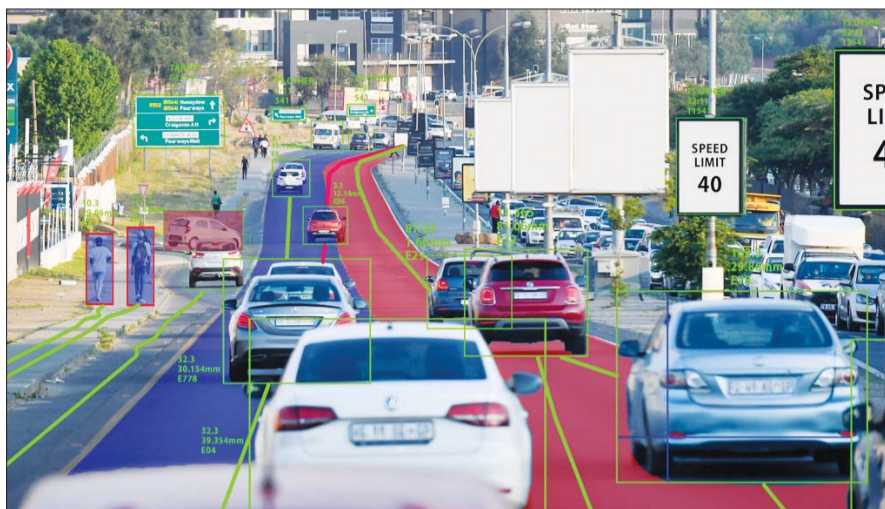
# 韓·이스라엘, '스마트 모빌리티' 개발에 1000만弗 공동 투자

산업부, '이노베이션 데이' 개최  
자율주행·전기차 등 연구개발 공고  
기금출연금 매년 각각 400만달러  
지원 범위에 인력교류 등 추가도

정부가 이스라엘과 자율주행 등 스마트 모빌리티 핵심기술 개발에 1000만달러를 공동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스라엘 혁신청과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양국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이스라엘 이노베이션 데이'를 공동 개최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기술 협력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1998년 '한-이스라엘 산업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했으며, 협정이 전면 개편돼 지난해 12월 다시 발효됐다. 새로운 협정에 따르면, 양국은 기금출연금을 매년 각각 400만달러로 기존보



/유투이미지

다 두 배 늘리고, 지원 범위에 공동 연구 개발 외 인력교류 등을 추가했다.

그간 양국은 약 7700만달러를 공동 투자해 총 196건의 국제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다. 한국의 큐어세라퓨틱스가 이스라엘 올제네시스사의 인슐린

세포 원천기술을 통해 줄기세포 치료기술을 사업화하고, 올제네시스모기업으로부터 5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성과가 대표적인 협력사례로 꼽힌다.

양국은 올해 글로벌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스마트 모빌리티를 대상으로

기술협력을 본격화한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자율주행, 전기차,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 미래 운송 수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글로벌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은 지난해 579억달러에서 2030년 2503억달러로 급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이날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현황과 연구개발 협력 분야를 논의하고, 유관기관 간 업무협력 양해각서(MOU) 2건을 체결, 기업 간 1대 1 기술 상담회 등을 통해 기술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국제공동 연구개발(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을 통해 3년간 1000만달러를 투자, 이스라엘이 강점을 가진 OTA(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MaaS(서비스형 모빌리티) 등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카 핵심 서비스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산업부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한국은 세계 5위 자동차 제조국, 세계 1위 고부가·친환경 선박 수주국인 모빌리티강국이며, 이스라엘은 미래자동차 분야 500개 이상 연구개발센터와 스타트업뿐 아니라 97개 유니콘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며 "양국이 상호보완적 강점을 활용해 협력한다면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선두주자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한-이스라엘 국제공동 연구개발사업 공고 기한은 5월 17일까지며, 지원 분야는 자율주행, 전기차, 조선, 항공, 철도다. 양국 기업과 학·연의 '2+2' 이상으로 구성된 산학연 컨소시엄을 선정해 과제당 최대 3년간 각각 최대 정부 출연금 500만달러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www.koril.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한국생활건강 '가짜후기' 1.4억 과징금

공정위, 2700여개 허위 광고 시정명령  
빈 박스 받고 후기 올리면 건당 지급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2700여개의 허위 구매후기를 광고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와 광고 대행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0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자인 감성닷컴이 '빈 박스 마케팅'을 통해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에 거짓 후기광고를 게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빈 박스 마케팅'이란 온라인몰의 후기 조작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집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해 후기 작성권한을 얻도록 해 허위

구매후기를 등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인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사 감성닷컴은 오일, 콜라겐 등 한국생활건강의 제품을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한 후,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2004년 4월~2021년 6월까지 2708개의 거짓 후기를 올렸다.

두 회사는 한국생활건강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아닌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허위 구매후기를 우회적으로 게재하는 내용의 광고 대행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

한국생활건강은 자신의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할 경우 허위 매출, 배송 오류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감성닷컴의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한 것으로 나

타났다.

공정위는 "두 회사는 빈 박스 마케팅이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과 구매 후기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생활건강이 특정 제품의 허위 구매후기 작성을 의뢰하면, 감성닷컴이 제품 등록, 아르바이트생 모집, 빈 상자 배송, 구매 대금 환급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

감성닷컴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개인 아이디와 개인 결제 수단을 이용해 한국생활건강의 제품을 구매하고, 빈 상자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후기를 작성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구매후기 작성 대가로 건당 1000원 내지 2000원을 받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 소상공인 노하우 '우수사례집' 발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지원사업 성공 사례를 담은 '소상공인 본부 통합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통합 우수사례집은 ▲창업편 ▲성장편 ▲재기편 ▲소공인편 등 소상공인 지원 분야별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는 ▲창업지원의 강한 소상공인 사업으로 한국 전통한과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앞장서는 선미한과 ▲성장지원의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으로 대한민국 제 1호 백년기름특화거기로 지정되는데 크게 기여한 모란전통기름협동조합 ▲재기지원의 희망리턴페이지로 폐업 위기를 극복하고 K-재난 의료기기 대표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골든아워 등 총 49개 사의 성공스토리가 자세하게 담겨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 중소 150곳 청년 '공정채용' 무료 컨설팅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  
현 채용 제도 진단 보완점 도출 방식

중소기업들이 청년 등 구직자를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돕는 무료 컨설팅 사업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1일 중소기업 150곳을 선정해 공정채용 제도 설계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120~150일 채용 관련 맞춤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전문 컨설팅 기관이 기업의 채용 광고와 인사 규정을 토대로 현 채용 제도를 진단하고 개선점과 보완점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컨설팅은 채용 일정 안내나 응시원서 접수 등 체계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는 지, 법령에 어긋나는 요소가 있는지, 원

하는 인재를 채용하고 있는지, 채용된 직원의 조기 이탈이 있는지 등으로 이뤄진다. 이후 청년과 기업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채용 제도를 설계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서류·면접 등 단계별 결과를 신속히 안내하고 면접에서 불합격한 경우 그 사유를 알려준다. 또 기업 대표와 채용 담당자, 면접관 등에게 면접 교육을 한다. 키나 몸무게 등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사항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평가 모델을 구축, 구직자들이 필요한 직무 역량을 미리 확인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입사 후 부적응으로 인한 조기 이직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 무역적자 개선위해 민관역량 총동원

산업부, '수출입동향 점검회의' 개최

수출 감소와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당장 수출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민관역량을 총동원한 수출드라이브를 지속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수출입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SVB 파산 사태와 유럽 투자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CS) 유동성 위기에 따른 업종별 수출 영향을 점검했다. 점검회의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수출지원기관과, 반도체, 자동차, 석유, 철강, 석유화학 등 업종별 협회 등이 참석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와 수요둔화 흐름 속에서 3월 20일 기준 수출이 전년대비 17.4% 감소하면서 63억달러 규모의 무역적자가 발생했다"고 언급하고 "글로벌 경기 상황과 반도체 가격 하락세 지속 등 영향으로 수출 여건은 당분간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기업·기관 간 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럽 투자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의 유동성 위기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본부장은 "고금리 등 복합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수출활성화가 중요한 만큼,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와 지원기관이 함께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 민간참여 확대... 기술자문 플랫폼 구축

기보, 외부전문가 등록 적극 참여 유도

기술보증기금이 다양한 분야의 민간 기술자문위원이 온라인을 통해 쉽게 기술평가 자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자문 통합관리 시스템'을 열었다.

21일 기보에 따르면 지난해 약 1000명의 외부 기술자문위원을 등록해 2000건 이상의 전문 기술평가에 기술자문으로 참여토록 한 바 있다.

기보는 이에 더해 외부 기술자문위원 참여시스템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축해 자격을 갖춘 누구나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축된 시스템은 자문위원이 직접 외부자문 등록, 이력 관리, 계약 체결, 의견서 제출 등을 수행할 수 있어 자문위원 중심으로 운영된다.

기보는 자문위원 선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 추천·선정시스템 도입 ▲자문계약 전자체결 ▲자문의견서 전산화 등 모든 제도를 온라인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